

## 광주시, 2600억원 투입 '녹색도시 전환' 박차

빛그린산단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올해 착공해 실증단지 조성 연말까지 '평촌마을 누리길' 조성...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 위해 광역위생매립장 단계별 조기 추진

광주광역시가 2045 탄소중립의 성공적 실현과 시민이 체감하는 녹색 도시 전환을 위해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2659억원을 투입해 대기산업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 체계 확립, 푸른 도시 조성, 깨끗한 수질관리 및 친환경 하수관리 등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환경도시기반과 자연환경보전 사업 32개 124억원 ▲대기질 개선사업 34개 567억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59개 414억원 ▲도심 속 녹지 확충 사업 72개 876억원 ▲건강한 물환경 조성사업 32개 498억원 ▲친환경 하수관리 사업 12개 66억원 등이다.  
 먼저 2045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 자원순환 시행계획, 공원녹지 종합계획, 물수요 관리·하천사업 종합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각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총괄적인 구상과 방향성을 제시해 녹색전진도시 광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환경도시기반과 자연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빛그린 산단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올해 착공하고 2022년까지 대기산업 관련 미세먼지 대응 혁신 기술 개발 및 실증단지로 조성한다.  
 지난해 12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록습지는 시민 참여로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장록습지~어등산~북룡산을 연결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한다.  
 또 평촌마을 누리길을 올해 안에 조성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생태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대기질 개선 분야에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9010대)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7500여 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142대), 전기차 보급(1238대) 등 시민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자원순환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광역위생매립장을 단계별로 앞당겨 조성하고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등 공공

선별시설을 확충한다. 또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RFID)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지원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돕는다.  
 녹지확충 분야는 광주시민에게 힐링 공간이 될 도시공원과 전통문화가 연계된 관광명소인 광주생태문화마을,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시립수목원 조성 등 대규모 녹지를 조성한다. 동시에 자투리 땅을 활용한 녹지 한 평 늘리기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녹도 등 소규모 녹지 조성을 병행해 초록으로 충만한 광주를 만든다.  
 물관리와 하수관리 분야는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노후 악취방지 시설 개선 등을 동시에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 밖에도 시민과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환경정책으로 녹색제품 보급 촉진사업,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의 사업들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확산을 유도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론부터 실천까지 망라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기후환경플랫폼도 구축한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청정 대기산업 인프라 구축,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시립수목원 조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19일부터 시비 2억원 투입  
 광주광역시시는 주택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정부 지원금 외 최대 100만원의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해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선착순으로 약 200여 가구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신청하는 3kW 태양광의 경우 총 설치비 약 461만원 가운데 국비 230만원과 함께 시비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신청 가구는 1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은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은 건물등기 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광주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문 시공업체로 선정된 참여기업 명단을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했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을 선택하고 참여기업과 상담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보조금 지원공고'로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진 기자

### 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공모

6월 18일까지 접수...생산·가공·유통 시설 10억까지 지원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의 '2022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참여할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단체를 오는 6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2~10ha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에 필요한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농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정수립 기념식  
 이음섭 광주광역시장이 9일 오전 서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김용집 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 시교육감, 김주원 광복회광주시지부장, 광복회원 등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사업 규모는 전국 18개소다. 총사업비 지원 한도는 개소당 10억 원으로, 신규 사업인 경우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1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공모사업' 전국 18개소 중 최다인 8개소가 선정돼 사업비 57억 원을 확보했다.  
 /김태범 기자

##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랑지의 봄

연둔리숲정자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규봉암의 겨울